민주당, 범여 통합 논의 불지핀다

박상천 대표 "중도세력 통추협 구성하자"

범여권, 긍정 평가속 주도권 장악 경계

박상천 민주당 대표가 9일 국회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범여권 원탁회의 성격인 '중도개혁세력통합추진협의회' 구성을 제안, 그동안 잠잠했던 통합 논의에 불을 지폈다.

그러나 박 대표의 제안에는 여전히 민주당 중심의 그늘이 깔려 있는 데다 조건부 통합론을 벗어나지 못해 범여권 대통합을 가속화시킬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다.

박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중도통합정당 결성을 앞당기기 위해 이에 찬성하는 중도개혁주의 정파와 다각적인 통합 협상에 나설 것"이라며"원칙과 대의에 맞는 중도개혁통합 정당만이 대선에서 한나라당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며 이 같이 제안했다.

그는 이어 "협의체가 결성될 경우, 올해 가을 또는 12월 초에 반한나라당 후보들이 연대해 당시의 지지도를 기준으로 후보단일화를 이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표의 이번 제안은 열린우리당의 대규모 탈당이 현실화될 경우 민주당이 자칫 통합 논의에서 주도권을 놓칠 수 있다는 점에서 통합 논의의 키를 선점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박 대표가 이날 "열린우리당 내외의 책임있는 인사들과 만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점은 열린우리당과의 대화를 사실상 거부해왔던 기존의 입장에 비해 진일보된 모습이라는 것이 정치권의 평가다.

여기에 민주당이 그동안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던 '분당(分黨) 사과' 및 '여당 지도부 인사들의 2선 후퇴' 등의 언급이 빠진 점도 눈길을 끈다.

특히, 박 대표가 "민주당도 변화해야겠지만 해체는 없다"고 밝힌 점은 민주당 중심의 중도통합신당의 창당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으로 읽히고 있다.

민주당 박상천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도개혁정당 추진방안 등 정국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를 반영하듯 범여권에서는 긍정적인 반응과 비판적인 반응이 교차하고 있다.

우선 열린우리당 광주지역 모 의원은 "민주당이 통합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그러나 박 대표의 제안을 살펴보면 아직도 민주당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아쉬운 점이 많다"고 말했다.

통합신당 고위 관계자도 "박 대표의 제안은 시기상으로 통합 과정에서 민주당의 주가를 높이려는 전략적 포석이 깔려있다"며 "민주당이 한걸음 더 적극적으로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거짓 진술'에 발목잡힌 김승연 회장

청계산 보복폭행 등 전면 부인…구속 위기

아들을 위해 보복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거짓말 전략'에 스스로 발목이 잡혀 구속 위기에 처하게 됐다.

김 회장이 '신병처리' 위기와 곤경에 처한 것은 수사 초기부터 '뻔한' 거짓말로 일관하다 들통이 나면서 진술의 신빙성을 잃어버린게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김 회장은 지난달 29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자진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지자 "청계산 폭행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보복폭행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 회장은 사건 당일인 3월8일 밤 북창동 S클럽에 간 사실은 시인했으나 청담동 G주점과 청계산에는 가지 않았고 직접 폭행을 하거나 지시를 내리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 본인뿐 아니라 아들과 경호원 등 한화측 관계자들은 모두 '청계산에 간 적이 없다', '폭행을 한 적이 없다'고 입을 맞췄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이와 같은 주장을 뒤집을 만한 정황 증거가 속속 나오면서 김 회장과 한화 측은 궁지에 몰렸다.

경찰은 당시 사건 현장 일대의 휴대전화 사용내역 등을 추적한 결과 김 회장 비서와 경호원 등 한화 관계자들이 청계산 등 보복 폭행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보복폭행의 실마리를 제공한 김 회장의 차남과 친구 이모씨 또한 폭행 현장에 동행했다.

게다가 범서방파 행동대장 출신의 거물급 조직폭력배 오모(54)씨가 사건 당일 3곳의 보복폭행 현장 중 2곳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김 회장 측은 더욱 할 말을 잃은 상태다.

한화그룹 비서실장 김모씨가 8일 소환조사에서 "S클럽 종업원들을 청계산으로 데려갔지만 회장님과 차남은 없었다"며 의혹을 일부 인정하는 것으로 전략을 바꾼 데는 김 회장이 처한 절박한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처음에는 거짓말과 전면 부인으로 일관했다가 진술과 다른 증거가 나오면서 다시 말을 바꾸는 자충수를 둘 수밖에 없지 않았겠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한화 측의 '말바꾸기'는 그동안 조사과정에서 나온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떨어뜨려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또 한화 측의 '모르쇠와 부인' 전략은 구속영장 발부의 중요한 판단근거 중 하나인 '증거인멸의 우려'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처럼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말을 바꿨다는 점은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당연히 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본다"며 신병처리에 자신감을 나타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법원, 영장 청구때 구인해 실질심사할 듯

■김회장 영장 신청… 향후 절차

경찰이 '보복 폭행'을 주도한 혐의로 9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해 영장 발부 여부와 신병처리가 주목된다.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청구하면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와 상해 정도 등을 감안해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검찰이 청구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법원의 피의자 심문을 거쳐야 해 구속 여부 결정에는 2~3일 정도가 걸릴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경찰이 구속·불구속, 기소·불기소 등의 의견을 붙여 검찰에 수사기록을 넘기면 검찰은 기록을 검토한 뒤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

영장이 청구되면 공은 법원으로 넘어간다. 김 회장은 현재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됐거나, 긴급체포 또는 현행범 체포된 상태가 아닌 '미체포 피의자'여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은 구인영장을 발부해 구인한 후 심문할 수 있다.

김 회장이 실질심사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서류심사 만으로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그러나 미체포 피의자의 경우 법원이 구속 사유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구인한 후 심문할 수 있어서 어떻게든 실질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서는 '구속해야 한다', '구속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엇갈린다. 죄질이 나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점, 사법질서를 무시하고 직접 물리력을 행사하는 '사적 제재'는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점이 구속 의견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반면 법원이 '구속 =처벌'이라는 인식을 고치기 위해 불구속 수사를 강조한 점, 도주 우려가 없고 먼저 폭행을 당한 쪽이라는 점을 들어 불구속의견도 나오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우리당 초선·중진 일부 '집단 탈당' 논의

'5월 빅뱅설'에 휩싸인 열린우리당에 집단탈당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당 정대철 상임고문이 주도하고 김덕규 문학진 정봉주 강창일 의원 등이 참여하는 중진·초선모임 소속 의원 15명 가량은 10일 오전 시내 모처에서 회동을 갖고 대통합신당 추진과정의 대응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들 그룹은 두달여 전부터 꾸준히 비공식 모임을 진행하면서 대선주자 연석회의와 '헤쳐모여식 제3지대' 통합을 동시에 성사시키기 위한 작업을 진행해 왔다.

문학진 의원은 "이제는 의원들의 태도를 명확히 할 시점이 됐다는 의미에서 모임을 사실상 공개키로 했다"며 "내일 모임은 대통합신당 성사를 위해 집단탈당에 준하는 시동을 거는 자리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들 그룹은 이달 말까지 민주당 의원들과 동시탈당에 의한 제3지대 구성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 아래 구체적인 탈당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상가·사무실 임대
위치 : 유동로타리 30m도로변, 상업지역
마지막 1층 166평 임대
(5층 중 2,3,4,5층 임대 완료)
용도: 병원, 전시장, 학원 사옥, 사무실, 대형병원 대형식당등 다용도 가능
■임대가는 상담후 결정
위치도: 한국노총, 구아세아극장, 본건물, 금남로, 유동오거리, 광주역
문의 528-1031, H.P 016-609-1031, 017-609-7968

새로운 다이어트 컨설턴트
NAVER 검색창에 지리산한약방 을 쳐보세요
www.jir.wo.to
전립선염·조루증·방광염
※다이어트·전립선염·조루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지리산한약방 T.(062)531-3636, 531-0700, 523-4600, 011-9612-5530

2007년 10월 28일 시험 확정!!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격 가능
신바람 공인중개사CD
공인중개사 18회 시험 합격 해법!
합격을 책임질 명강의, 명강사!
유명 강사진의 현장감 넘치는 강의로 머리에 쏙쏙 들어옵니다. 올해는 꼭 자격증을 취득하십시요.
해법1 족집게 강의만이 속성 합격의 지름길!
제 14회 공인중개사 수석 합격 및 노량진 학원가의 명성 그대로 전국최대 합격생을 배출한 북파일이 합격을 책임집니다. 해마다 바뀌는 출제경향을 꼭꼭 집어내는 족집게 강사들의 명강의만 모았습니다.
해법2 핵심내용의 반복만이 초심자 합격의 지름길!
40점 과락없이 60점 이상이면 합격! 핵심내용만을 계속 반복하면 수석은 아니더라도 합격은 할 수 있습니다. 비결은 핵심내용의 반복! CD동영상 강의는 언제라도 이해가 될때까지 반복학습 가능합니다.
해법3 초심자 눈높이 강의만이 교과완정정복의 지름길!
강의내용이 너무 어려우면, 금방 포기하게 됩니다. 초심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시작해서, 눈높이에 맞게 난이도가 올라가는 강의! 실력이 쑥쑥 올라가면서, 지치지 않고 학습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 중고 CD 보내실 주소 : 서울시 양천구 목4동 807-5 가인빌딩 103호 (주)나래디앤피 TEL : 02)392-0972
시간절약, 금전절약의 황금찬스
족집게강의 동영상CD 풀세트 39장
385,000원 126,000원
특별사은품 기출문제(12~16회) CD 증정
■ 민법 및 민사특별법 CD 7장 ■ 부동산 공시법 CD 5장
■ 부동산학 개론 CD 6장 ■ 중개법령 및 실무 CD 6장
■ 부동산 공법 CD 10장 ■ 부동산 세법 CD 5장
■ 2개월 분의 학원강의 수록 ■ CD 1강좌 40분 강의
■ 1개월이면 완전 마스타 가능 ※교재 필요시 별도 구매 가능
NAVER 이츠컴 검색 인터넷 쇼핑몰 www.itscom.co.kr
●국민은행 / 예금주 : 스마일 / 계좌번호 : 417201-01-145079 ●각종 카드 결재 가능
연중 무료상담전화 : 080-466-3030
●소자본 개업 가능 ●조기 명예퇴직·전직대비 ●여성의 경제적 독립기회 ●고소득 자유 직업

글로벌시대 요즘 뜨고 있는
중국어, 일본어, 영어는 필수!!
중국어+일본어+영어=125,000원 ⇒ 99,000원 (교재는 별도)
완전 100% 학원강의식 동영상 강의 신바람 업그레이드 강좌 영어회화
동영상강의 CD
38,000원 ※교재는 별도
잘 통하는 영어 4가지 비법
비법1 : 내가 필요한 영어부터 습득하라!
비법2 : 덩어리 영어 (Cluster English)로 익혀라!!
비법3 : 원어민 (발음, 강세, 억양) 과 동시에 말하라!!!
비법4 : 상대방의 문화를 이해할 것
잘 통하는 영어 5단계 프로그램
1단계 : Listening CD강의 내용을 면밀히 듣는다.(5회)
2단계 : Repeating 원어민의 발음을 듣고 따라한다.(10회)
3단계 : Simultaneous Language Learning 원어민의 녹음소리와 동시에 말한다.(10회)
4단계 : Role Playing 상대방과 번갈아 가며 말한다.(2회)
5단계 : Conversing 외국인 또는 친구와 훈련된 내용으로 대화한다.(2회)
중국어를 잘하는 방법!! 요즘 중국어가 뜨고 있죠?
동영상강의 CD
48,000원 ※교재는 별도
우선 중국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발음과 성조입니다.
성조를 잘하는 방법!!
＊ 온몸으로 공부하세요.
＊ 성조를 온 몸으로 표현하면서 크게 말하십시요.
＊ 병음과 성조는 충분히 익힌다.
＊ 가능한 성조배울때는 1:1로 동영상강의로 개인수업 받으십시요.
＊ 자기 발음을 정확하게 체크가 가능해야 합니다.
＊ 성조를 배울때는 동영상 강의를 100% 활용하세요.
＊ 아침에 일어나서 큰 소리로 성조를 읽으면서 녹음하고 동영상강의 선생님 강의로 교정받으세요.
일본어를 배우려면 9가지의 벽을 넘으면 일본어 끝!
동영상강의 CD
39,000원 ※교재는 별도
첫째, 히라가나라는 일본문자이며
둘째, 암기할 단어
셋째, 동사와 형용사의 활용
넷째, 조사와 부사 등의 문법적 요소
다섯째, 1945자나 되는 상용한자
여섯째, 일본식 관용표현
일곱째, 존경어
여덟째, 1945자나 되는 상용한자를 펜으로 직접 쓰기
아홉째, 작문
인터넷 쇼핑몰 www.itscom.co.kr NAVER 통합검색 이츠컴 검색
●공급원 : (주)나래디앤피 ●국민은행 / 예금주 : 스마일 / 계좌번호 : 417201-01-145079
24시간 무료상담전화 : 080-466-3030 (일요일, 공휴일 상담가능)